

지구촌 IS 학살 비난... '나는 겐지다' 운동 확산

일본인 1명 살해 확인... 인터넷서 남은 인질 겐지 석방 요구 빗발

日, 모든 외교 채널 가동... 여성 테러리스트 수감 요르단과 협의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납치한 2명의 일본인 인질 중 한 명인 유카와 하루나(湯川 隆菜·42)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억류중인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後藤 健二·47)씨를 석방하라는 요구가 세계 각지에서 표출되고 있다.

일본은 또 IS가 억류하고 있는 고토 겐지씨 석방 조건으로 제시한 이라크 여성 테러리스트를 수감 중인 요르단과의 협의를 서두르는 등 인질 석방에 대한 외교채널을 가동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IS는 이날 밤 자체 운영하는 아랍어 라디오 알바얀을 통해 "경고를 이행했다. 주어진 시간이 종료함에 따라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나를 처형했다"

고 밝혔다.

알바얀 라디오는 뉴스시간에 38초간 아나운서의 음성으로 "IS는 경고한 대로 일본인 인질을 살해했다. IS는 공개한 비디오영상에서 두번째 일본인 인질이 '유카와가 사형에 처해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나운서는 다른 일본인 인질이 자신의 석방을 위한 조건으로 요르단에 사형수로 갇힌 여성 테러리스트 사지다 알리사위를 석방하라고 일본 정부에 압력을 가하도록 친척들에게 호소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전날 밤에는 유카와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IS는 지난 20일 온라인 메시지로 72시간 내로 2억 달러(약 2165억원)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이슬람국가(IS)에 억류된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 씨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는 겐지다'(I AM KENJI)는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올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몸값을 지급하지 않으면 유카와씨와 고토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와함께 인터넷을 중심으로 나머지 인질인 고토 겐지 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명 '나는 겐지다'(I AM KENJI) 사진 올리기 운동이다. 일본 오사카(大阪)시 출신으로 미국 뉴욕에서 영상 프로듀서로 일하는 고토 씨의 친구 니시마에 다쿠(西前 拓·52) 씨가 제안한 것으로,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는 사진 수백 장 올라왔으며 26일 오전 7시 50분 현재 약 8400명이 호감(좋아요)을 표시했다.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체인지닷오그(change.org)에도 관련 청원이 여러 개 올라왔다. 고토 씨를 구해달라는 청원에는 26일 오전 7시 50분 현재 1만9000명이 넘게 동의했으며 인질을 석방하도록 IS를 설득하자는 안에는 5700명이 넘게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각료 간담회에서 고토 씨 석방을 위해 전력을 다하도록 전각료에 거듭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인

명이 최우선이라는 입장 아래 요르단 일본 대사관에 설치된 현지대책본부를 통해 요르단 측과 접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르단에서는 이슬람국가 측이 억류 중인 요르단군 조종사와 리사위 사형수를 교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고토 씨가 우선적인 석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고토 씨를 인질로 억류한 범행 그룹은 2005년 요르단에서 희생자 다수를 낸 자폭 테러에 관여한 이라크 여성 사지다 알 리사위 사형수와 고토 씨의 교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회견에서 고토 씨 조기 석방을 위해 "관계국 등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 "이슬람국가의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혁명 4주년 이집트...평화는 언제 오나 이집트 시민혁명 4주년을 맞은 25일(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와 전국 주요도시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군경이 격렬하게 충돌, 최소 20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사진은 이날 카이로 동북부 마타리아 지구에서 시위대가 타이어를 태우며 보안군과 대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도 IS 테러 위협서 안전하지 않다”

중동 정치분석가 인터뷰

모든 미국 지지국 공격 대상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격퇴를 목표로 삼은 미국의 지지국으로 알려진 한국도 IS의 테러 위협에서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동 정치분석가이자 이집트 언론사 울마(Ummah Press)의 아흐메드 사즐리 편집장은 25일(현

지시간) 카이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국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IS는 현재 이라크·시리아 내 IS 공습을 주도해 온 미국 지원 국가들을 겨냥해 보복을 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즐리 편집장은 "지금 세계의 모든 미국 지원 국가들이 극단주의자들이 IS 공격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일본은 최근(아베 신조) 총리가 중동 방문 기간 IS 대책과 관련한 자금 지원을 공식으로 발표한 게 자국민 인질 피살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美, 러시아 제재 강화

반군 일반마을 공격에 유화정책 취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새해 들어 재개된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반군의 대대적 공격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검토하겠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인도를 방문 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반군의 공격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여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대치를 제외한, 모든 추가 옵션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유럽 등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EU 28개국 외무장관이 오는 29일 긴급 회동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유화정책은 침략자에게 더 큰 폭력을 부추긴다"며 "환상이 아닌 냉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할 때"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EU 정치인들이 지난 수개월간 러

시아 제재 완화 시점을 논의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논의의 주제가 제재 강화 방안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앞서 24일 우크라이나 반군은 남동부 도시 마리우폴 주택가와 상점, 학교, 시장 등에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최소 30명이 숨지고 95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말 이후 소강상태였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태는 이달 17일 반군의 도네츠크 공방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정부군의 반격으로 다시 크게 악화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및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마리우폴 공격이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포로셴코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마리우폴 공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등과의 통화에서 이번 공격이 반군이 아닌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소행이라고 행변했다. /연합뉴스

그리스 총선 급진좌파 '시리자' 압승... “긴축정책 폐지하겠다”

치프라스 대표 최연소 총리 전망

25일(현지시간) 치러진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압승했다.

개표가 97.6% 진행된 상황에서 알렉시스 치프라스(40·사진) 대표가 이끄는 시리자는 득표율 36.4%로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가 당수인 신민당(27.8%)을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3위는 네오나치 성향의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으로 6.3%(17석)을 득표했으며, 중도 성향의 신생정당인 포타미가 6%를 뒤를 이었다.



다만, 시리자는 전체 의석 300석 가운데 149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돼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과반의석(151석)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정계는 시리자가 3위 이하 정당들과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시리자는 중도 성향의 포타미와 중도 좌파인 사회당, 우파 성향이지만 규제금에 반대하

는 그리스독립당 등과 연합정부 구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당수가 총리를 맡으며 3일 안에 정부를 구성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리자의 승리로 그리스 현대정치사에서 처음으로 급진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 치프라스 대표가 최연소 총리가 될 전망이다.

치프라스 대표는 이날 밤 아테네대학 앞에서 총선 승리 수락연설을 통해 "그리스는 5년간 치욕과 고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다"며 2010년부터 받은 규제금용 이행조건인 긴축정책을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

2인분을 주문하면 2인분을 더드리는 참숯에 구워먹는 소고기전문점

소갈비살, 소안창살, 살치살

소고기 비싸게 먹을 필요 없습니다! 1인 만원이면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소갈비살 기본가격	기본2인분 2+2 = 20,000원	국내산돼지갈비2+2(700g) 20,000
	기본3인분 3+3 = 30,000원	국내산갈비대갈비2+2(480g) 20,000
	기본4인분 4+4 = 40,000원	왕갈비탕(6,000원) 볼백 (6,000원)

6.25에 단리는 단리도 아닙니다. **초대박매출** 신규창업, 업종전환 시 성공을 보장합니다. 오픈점 일평균 2백만~4백만원 이상 대박!!!

262-0049/010-3803-2612

오치점(266-0045) · 두암점(251-8216) · 교대점(526-6617) · 일곡점(573-5204)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불경기!!! 절대 싼 고기라서 싸게 파는 게 아닙니다. 빅리더!!! 손님은 싸게 드시고 업주는 적은마진이지만 많이 팔기 때문에 혁신소장은 불경기형 맞춤형 브랜드 손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있습니다.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지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무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